

역의 기호와 서사의 통사 체계

정금철

1. 서론

이 논문은 역(易)의 기호와 서사 문학의 통사 체계 syntagmatic structure와의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역의 변화 추이에 상응하는 서사적 전개 양상을 통해 역의 기호가 신화나 민담 등 고전적 서사담뿐 아니라 현대 소설에 일관하는 서사 문학의 초구조이고 문법일 가능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동양 철학에서 역과 그 실체인 태극(太極)은 천·지·인 삼재(三才)에 널리 통하는 우주적 도(道)이며 통합 원리이다. 기호학적 용어로 말하면, 역은 곧 자연과 인간사에 일관하는 초구조이니 역의 언어는 문학 언어의 규범일 수 있고 역의 체계는 문학적 현상을 읽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신화나 민담은 원시적이며 집단적인 이른바 서사 문학의 원형이다. 이들이 서사 문학의 원형인 만큼 이야기 체계는 서사 문학의 모형 model일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화와 민담의 순접 추이로써 이야기의 통사 체계와 그 전형적 유형(변이 양상)을 검토하고자 하며, 의미론의 층위에서

서사 추이에 동반하는 문학적 원형 심상을 읽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서사 모형이 현대 소설의 담론 양상과 그 저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은 텍스트의 통사 체계를 역학의 관점으로 읽되, 그 해석의 틀은 이론적으로 정비된 기호학의 방법론을 활용하게 된다. 서양의 기호학과 동양의 역학은 그 관점에서 상호 동일한 기반을 공유하는 상동 체계 homology이다.¹⁾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의 본성인 구조와 역학에서의 역의 존재적 실체로 명명한 태극은 그 본질에서 등가적 체계이다. 기호의 구조, 즉 기호를 기호로 작용하게 하는 원리는 차이 ∞ 연관, 하나 ∞ 들의 대립의 한쌍 binary opposition에 자리한다. 마찬가지로 역의 태극 또한 음/양의 차이(相剋) ∞ 일치(相生), 하나 ∞ 들의 변증법적 체계에 기반한다. 기호의 구조와 태극의 이치, 기호학과 역학은 이처럼 그 체계에서 상동성을 공유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호학은 역학의 방법론에 유용하며 역학은 기호학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다. 서로가 상관적이므로 또한 상보적일 수 있는 것이다.

서사 문학에 대한 역학으로의 접근은 국문학을 우리 전통 철학으로 조명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문학을 서양의 이론으로 해명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철학을 문학의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2. 역의 변화 추이와 이야기의 순접 구조

신화나 민담은 대개 과업의 성취나 운명의 전환이 두드러진 얘기들이다. 「단군 신화」나 「동명왕 신화」 등은 우주의 생성과 시조의 탄생에 관한

1) 줄고, 「한국 시의 기호학적 유형 연구」, 『한국 시의 기호학적 연구』, 새문사, 1990, pp. 13~16.

이야기들이고, 「온달전승」이나 「서동전승」 「홍부전」 「심청전」 등은 모두가 재난의 극복이나 상황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대체로 신화는 생성(탄생)과 성취를 이야기하고, 민담과 소설은 전환과 변화를 이야기한다. 서사란 본질적으로 이런 생성과 변화의 현상에 자리하는 것이다. 흔히 소설론에서 말하는 사건이나 스토리—구조주의 용어로 플롯plot에 대한 스토리story—란 것도 상황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변형과 변화의 추이를 이르는 개념이다.

역을 일러 『주역』에서는 “生生之謂易”²⁾이라 한다. 그러니까 역은 자연과 현상의 생생 작용인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궁구한 철학이다. 『계사전(繫辭傳)』에서는 “역의 도는 변천이다. [……] 오직 변화하는 것만이 적당한 것이다”³⁾고 말한다. 그래서 역은 일상적으로 ‘바꾼다’ 또는 ‘바뀐다’의 개념을 지닌 글자이다. 나라와 나라끼리 물건을 바꾸는 것을 ‘교역(交易)’이라 하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변역(變易)’이라 한다.⁴⁾ 역은 변역의 도, 즉 변형(변수)과 변화의 이치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주역』의 도(道)〈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64괘(卦)〉의 체계는 추상원리인 도(太極)로부터 구체 현상인 64괘에 이르는 각 층위별 변형의 갈래와 변화의 추이를 체계화한 것이다.⁵⁾

이야기의 전개 과정인 서사의 통사 체계 역시 변천과 변형을 지시하는 문형들의 접속에 자리한다.⁶⁾ 신화나 민담의 이야기는 대개 ‘되다’의 서술어 문형—보다 구체적으로 ‘누가→이(을)→되다(이루다)’의 주된 문형에 내재한다. 그리고 이 주문형은 그에 앞서 ‘이다’의 상태 서술과 ‘하다’의 행위 서술—행위 서술은 다시 종속적으로 ‘하게 하다(조종)’→‘할 수

2) 「繫辭」上, 『周易』.

3) “易之爲書也, 不可遠, 爲道也, 屢遷變動不居, [……] 唯變所適.”

4) 김경돈 역, 『주역』, 명문당, 1985, p. 17.

5) 참고, 앞의 책, pp. 22~23.

6) 김종구, 「『삼국유사』 서사 구조 연구」, 김열규 편 『『삼국유사』와 한국 문학』, 학연사, pp. 22~25.

그러면 이런 역의 변화 추이에 대한 서사의 순접 체계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호학에서 말하는 서사의 통사 체계는 '이다' → '하다' → '되다'의 서술어 문형 계기에 자리하는 편이다. 곧 상태 발화 → 행위 발화 → 상태 발화의 추이로 접속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다'의 주어진 상태에서부터 '하다(하게 하다[조종]) → 할 수 있다(능력) → 되게 하다(수행)'의 수행 행위를 거쳐 다시 '(이게) 되다'의 성취 상태로 연계된다. 요약하면 이야기의 언술 층위는 상태 발화(이다/되다) ⇌ 행위 발화(하다)의 반복 운행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이와 같은 통사 층위를 의미 층위로 확대하여보면, 그 전개 방식은 대개 '이다'의 주어진 처지로부터 → '하다'의 모험과 수행을 거쳐 → '되다'의 새로운 상태로의 변형으로 움직인다. 기호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야기 모형은 최초의 발화(A) → 이에 대한 부정적 작용인 시험(non-A) 사이에 개입되는 다른 미시적 변형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¹²⁾ 요약하면 결실의 상황 → (수행의 과정) → 결실의 해소, 지양의¹³⁾ 연쇄인 갈등 ⇌ 해소 :: 분열 ⇌ 결합 :: 대결 ⇌ 화해간의 부정적 징표(-) ⇌ 긍정적 징표(+)의 반전과 역행을 따르는 것이다. 이른바 '역전의 저울대'에 내재하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역의 추이와 서사의 통사는 역행의 순환이라는 공통 질서를 동반한다. 역과 서사는 동일 기반을 공유하는 상동 관계 homology인 셈이다. 이런 역의 이치와 서사의 문법 저변에는, 역이 표상하는 우주적 질서나, 서사가 모방하는 인간의 행위나 모두가 무릇 번역의 질서, 즉 역행의 순환 법칙에 지배된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실상 자연의 질서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생성 ⇌ 소멸으로 순환하고, 인간의 행위는 이 ⇌ 함, 집 ⇌ 산으로 움직이며, 인류의 역사는 흥 ⇌ 망, 성 ⇌ 쇠를 거듭한다.

12) Anne Henault, *Narratologie, semiotique générale*, Paris: P. U. F., 1983, pp. 1~39; 송효섭, 앞의 논문, p. 28.

13) 김일규, 『한국 문학사』, 탐구당, 1983, p. 78.

14) 김일규, 위의 책, p. 79.

역에서는 “一陰一陽之謂道”⁹⁾라 말한다. 곧 역은 존재(변형)의 본성을 하나의 대립체, 대립(음·양)의 한 쌍으로 보며, 존재(변화)의 현상을 대립(相剋)의 엇갈림(相生), 반전의 추이로 파악한다. 자연계의 종자는 암수의 한 쌍으로 존재하며 그 암수의 교류로써 생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운명은 음지와 양지에 자리하며 그 음지와 양지의 엇갈림에 따라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고 음지가 양지로 역전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역에서 음 \rightleftharpoons 양의 추이는 음·양 간 대립의 엇갈림, 즉 역전의 공식에 내재한다. 『주역』의 태괘(泰卦) 삼효사(三爻辭)는 “언덕이 없는 평지가 없고, 되돌아움이 없이 가기만 하는 것은 없다”¹⁰⁾고 말한다. 역은 이러한 언덕 \leftrightarrow 평지의 반작용과 그 반작용의 왕 \rightarrow \leftarrow 복 운행에 내재한다. 평 \leftrightarrow 파, 왕 \leftarrow 복의 반대 지향과 평 \rightarrow \leftarrow 파, 왕 \rightarrow \leftarrow 복의 본래 지향, 즉 반(反)과 복(復)의 역행 관계에 지배된다. 역은 음 \rightleftharpoons 양의 반복 교차가 우주의 운행 원리이며 변역의 질서라고 생각한다. 『주역』의 64괘의 서열은 각 괘가 성격상 반대되는 괘로 이행하며 —천괘(天卦) \rightarrow 지괘(地卦) [……] 태괘(泰卦) \rightarrow 비괘(否卦) [……] 기제괘(既濟卦) \rightarrow 미제괘(未濟卦) — 이와 같은 역행을 되풀이한다.¹¹⁾ 그래서 음양의 교호 작용은 반발 ∞ 복귀::대립 ∞ 화해::분리 ∞ 결합::대치 ∞ 보완의 변증법에 자리한다. 이는 사물에 비유하자면 마치 시소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시소는 하나의 축을 이룬 좌/우 양측이 상호 상/하의 대칭(역행)으로 작동한다. 하나이되 양면이며, 일치이되 대치인 양극이 올라가면/내려오고 \rightleftharpoons 내려오면/올라가고의 역행을 반복하면서 상호 전제 ∞ 보완의 역학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역의 현상인 음 \rightleftharpoons 양의 추이는 시소의 원리와도 같은 역행의 순환, 즉 역전의 공식에 자리함을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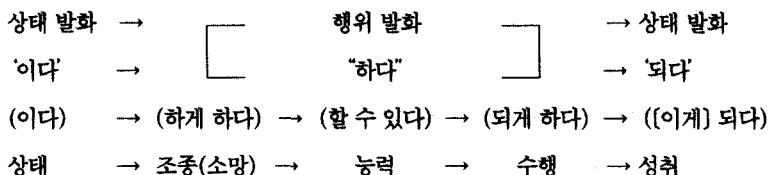
9) 「계사」上, 『周易』.

10) “無平不陂, 無往不復.”

11) 음양오행의 운행은 상생적으로 배열되기도 하고, 상극적으로 배열되기도 한다. 역의 64괘의 운행은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상생적 ∞ 상극적 관계에 호응한다(배종호, 「동양 본체론 서설」, 한국철학회 편, 『동양 철학의 본체론과 인식론』, 연세대 출판부, 1986).

있다(능력)' → '이게(되게) 하다(수행)' —의 문형들을 앞세운다.⁷⁾ 그러니까 대개의 이야기들은 '이다'의 주어진 상태에서 '하다'의 행위 수행을 거쳐 '되다'의 새로운 상태에 이르는 전환과 변형의 접속에 자리하는 셈이다. 가령 「홍부전」의 경우, 이야기 전개는 '형인 놀부는 부자이고 아우인 홍부는 가난뱅이이다' → '홍부는 착한 일을 하고 놀부는 악한 일을 일삼았다' → '홍부는 부자가 되고 놀부는 가난뱅이가 되었다'의 문형 계기를 따른다. 이처럼 무릇 이야기란 행위를 통하여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라는 변형의 추이를 보편 구조로 공유한다. 즉 행위의 연결로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는 변형의 연결이라 간주되어도 좋은 것이다.⁸⁾ 이처럼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읽는 작업은 곧 생성 및 변형의 추이를 따라가는 작업과 일치하는 것이다.

서사의 예술적 통사 체계



지금까지 우리는 역에서 말하는 역의 본성과 기호학에서 말하는 서사의 특성이 모두가 생성과 변화의 질서를 공유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이치와 서사학에서 체계화한 이야기의 순접 추이를 상관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7) 송효섭, 「『삼국유사』의 환상적 이야기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8년 박사 학위 논문, pp. 25~26. 이 논문에서는 '이다'와 '되다'가 상태 발화이므로, 양상적 model 발화 가운데, '이게 하다'와 '이게 이다'를 '되게 하다'와 '이게 되다 : 되다'로 표시한다.

8) 송효섭, 위의 논문, p. 26.

신화와 민담은 이런 결핍 ∞ 충족::분열 ∞ 결합::갈등 ∞ 화해의 변증법적 추이를 이야기한다. 이들은 음 ∞ 양의 역행 ∞ 순행(반복)의 필연적 교체를 형상화한다. 심층 심리에서는, 특히 융 C. G. Jung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신화에 내재하는 이런 양극화(반발) ∞ 융합화(복귀)경향을 심리적 역동성 psychic energy의 필연적 결과로 인식한다.¹⁵⁾ 이른바 심리의 의식 ∞ 무의식 사이의 상극성 ∞ 상보성의 보편 경향이고, 그 의식 ∞ 무의식간의 결핍 ∞ 보완의 필연적 욕구라는 것이다. 실로 신화와 민담은 각기 개성적 차이가 있기는 해도 필경 “두 가닥의 움직임”이 하나의 “합일을 향한 움직임”을 마무리짓는 양극화 ∞ 융합화의 심리적 경향을 수반한다. 신화 속에는 대조적인 두 본성이 하나로 합일하려는 분열 ∞ 통합의 추이가 “만다라의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것이다.¹⁶⁾

3. 신화와 민담의 서사 구조

이 절에서는 앞의 절에서 논의해온 역과 서사의 상동 체계를 실제 서사담의 전개 과정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역의 전형적 양항 binary opposition인 비괘(否卦)/태괘(泰卦)의 변화 추이에 상응하는 신화와 민담의 서사 모형을 읽게 된다. 역에서 본질적 양항인 음 ∞ 양의 양의는 64괘의 현상적 층위로 이동하여 보면 비괘 ∞ 태괘 양항과 상동적이다. 즉 추상적 음 ∞ 양::현상적 비 ∞ 태로서, 하나의 이(理) ∞ 기(氣), 하나의 심층 ∞ 표층과도 같은 관계이다.¹⁷⁾ 64괘의 서열 중 그 11번째와 12번째인 ☷:天地否와 ☴:地天泰는 상괘/하

15) Marie-Louise von Franz, "Fairy Tales, Myths and other Archetypal Storie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N. Y.: Spring Pub., 1970.

16) 김열규, 앞의 책, p. 52.

17) 줄고, 앞의 책, p. 28.

패가 순양(☰)과 순음(☷)으로 되어 있고, 그 패상이 양 : 天 와 음 : 地 의 대립 체계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비패와 태패는 태극 : 음/양의 본질에 충실하며, 또한 우주::천/지::전/곤의 근본에 일치하니 곧 역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또한 비패와 태패는 그 상호 관계가 양 / 음 의 대립 체계(대립항)이므로, 이 두패로써 역의 기본적인 변별(변형) 및 변화의 추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점을 동반한다.

그러면 실제로 역의 전형인 비패→태패의 변화 체계를 읽어보기로 하자.¹⁸⁾

역에서 표상하는 비패와 태패의 상(象)은 비패가 정위(正位)→역응(逆應)으로, 태패가 역위(逆位)→정응(正應)으로 움직인다.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비패가 바르나(正)→막힌다(否)로, 태패가 거꾸로이나(逆)→통한다(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본뜰 경우, 비패는 천(天)인 양기가 위(양위)에 있고, 지(地)인 음기가 아래(음위)에 처하는 바, 양기(天)는 가벼워져(明) 위로 올라가고 음기(地)는 무거워서(暗) 아래로 가라앉게 되므로 그 형상은 수직적 분리 형태 : ↑에 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태패는 지인 음기가 양위(위)에 있고 천인 양기가 음위(아래)에 처하는 바, 양기(天)는 올라가고 음기(地)는 내려오므로 수평적 융합 형태 : →←를 시사하게 된다. 다시 이를 음양의 총위인 단선 형태로부터 사상의 총위인 복선 형태로 확장하여 보면, 비패와 태패는 각각 上天 : 양위에 양성 上地 : 양위에 음성 으로 그 구조는 비패가 양 ↔ 음 의 이(二)자의 평행(분리)형에 그리고 태패는 양 ↘ 음 의 X 자의 융합(일치)형에 자리함을 읽게 된다.

이런 경우 역이 시사하는 비패→태패의 변화 추이는 사상의 총위에서 시소 운행, 역전의 저울대에 자리하게 된다. 이 논문의 서사 체계 분석은 이와 같은 시소 운행에 상응하는 서사의 통사론〈서사의 의미론〉〈의식의 경향(심층 심리)을 검토하게 된다.

18)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참고, 앞의 책, pp. 31~36.

이야기의 서사 체계 연구는 음/양 양항에 상응하는 행위 주체/추구 대상의 관계를 읽는 작업이다. 이 경우 행위 주체, 이른바 주인공의 대립항인 그 추구 대상은 극복해야 할 대결의 상대 : 적대 관계일 수도 있고, 획득해야 할 소망의 대상 : 일치 관계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역의 층위에서 볼 때 음양의 다음 단계인 사상의 층위에서 서사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사상의 층위에서 이야기를 다룰 경우, 음 \rightleftharpoons 양::주체 \rightleftharpoons 대상의 복합 체계가 드러나므로, 한 쌍인 두 행위 주체(주인공)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읽는 데 유용한 관점일 수 있다. 또한 서사의 미시적 기능들—가령 그레마스 A. J. Greimas가 말하는 파송자·수령자·원조자·적대자—을 한꺼번에 통합하여 읽는 데 적절한 관점일 수 있다.

이 논문은 특히 역의 체계에 상응하는 서사의 체계를 읽는 것이 목표이므로, 역의 양위/음위, 양성/음성과 같은 표상을 읽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 양항 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신화나 민담을 검토 자료로 선택하게 된다. 먼저 천/지의 징표로 출발하는 「단군 신화」의 서사 구조를 읽은 다음, 이에 준하여 한 쌍의 남/녀 관계를 표상하는—예컨대 「온달전승」 「서동전승」 「공쥐팔쥐전」 등—민담들의 변이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I. 「단군 신화」의 서사 체계

「단군 신화」는 건국 신화이고 시조 전승이다. 「단군 신화」도 여느 시조 전승들과 마찬가지로 '되다'의 성취가 변형의 징표로 뚜렷이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단군을 서사 주체인 주인공으로 볼 경우,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문형 접속에 자리한다.¹⁹⁾

19) 변형을 드러내는 방법의 하나로 텍스트를 문형으로 요약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어부와 술어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형은 곧 상황의 변전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는 텍스트 인술 속의 문장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문형이라는 말을 쓴다.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 문장의 구조가 상동적임은 이미 여러 기호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김종구, 앞의 논문, pp. 22~25).

단군이 태어나다



단군이 왕이 되다<시조가 되다<산신이 되다

단군의 성취는 이처럼 탄생 상태→성취 상태로 접속되면서 그 중간 단계인 수행 행위의 과정(언술)이 생략되어 있는 양식이다. 이는 대개의 시조 전승이 그러하듯이 주인공의 타고난 신성(神性)이 과업 성취의 원천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²⁰⁾ 즉 단군은 천신(天神)인 환인(桓因)→환웅(桓雄)의 자손으로 그의 신성(神性) 자체가 장애 없는 성취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단군은 과업 수행의 행위 주체라기보다는 신성한 상태 주체로 드러나고 있다. 그의 영웅적 능력(행위)보다는 초인적 존재(혈통)가 강조되고 있는 편이다. 이 이야기에서 주된 문형은 '단군이 시조가 되다'에 앞서 이미 '단군이 탄생되다'의 성취(변형)에 선행적으로 내재하는 편이다.

「단군 신화」에서 주인공(행위 주체)의 수행 과정에 의한 변형이 뚜렷이 드러나는 문맥은 단군의 부모인 환웅과 웅녀의 결혼 성취담에 내재한다. 단군의 탄생 발화인 '단군이 태어나다'를 선행적으로 '단군을 낳다/단군이 태어나게 되다'의 성취 발화인 주문형으로 놓게 되면, 단군의 부모인 환웅과 웅녀가 서사 주체(한 쌍의 주인공)가 되면서 주문형은 다음과 같은 선행 문형들을 앞세우게 된다.

여기에서 환웅과 웅녀는 각각 스스로 행위 주체이면서 서로 결혼과 수태의 추구 대상(배우자)인 주체⇌대상의 관계에 있다. 이들 환웅⇌웅녀 한 쌍의 관계로부터 이 이야기의 변형이 연출된다.

표면적 서사 층위에서 환웅은 천신(天神)의 아들이고 웅녀는 굴속에 사는 곰이다. 환웅과 웅녀는 천상(族)/지하(族)의 계층(신분)과, 신성(神性)/수성(獸性)의 천성(자질)에 자리한다. 역의 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각각

20) 송효섭, 앞의 글, p. 32.

환웅은 天神의 아들이고

웅녀는 굴속에 사는 꿈이다



인간(남자)으로 假化한 환웅과

인간(女身)이 된 웅녀가 결혼하다



환웅과 웅녀가 단군을 낳게 되다

(단군이 태어나게 된다)

① 웅녀는 꿈이다



웅녀가 化爲人을 원하다

웅녀가 化爲人을 할 수 있다

웅녀가 化爲人을 되게 하다



웅녀가 女身이 된다

② 환웅은 天神의 아들이다



(환웅이 웅녀의 수태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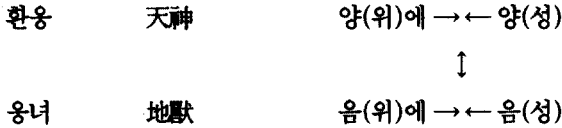


환웅이 스스로 인간(남자)으로 假化되다

양위/음위의 상/하 관계 및 양성/음성의 명/암 성분에 자리한다. 역에서 양성/음성, 양위/음위는 상대적∞절대성에 내재한다. 역에서 양/음은 천/지::남/녀의 상을 본뜨므로,²¹⁾ 양성/음성은 각각 강/유::동/정::명/암에 내재하며, 이와 함께 양기/음기는 자연히 능동/수동::외향/내향::상승/하강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양위/음위는 저절로 표/리::외/내::상/하에 위치하게 된다.²²⁾ 환웅과 웅녀는 주어진 신분에서 천상(族)/지하(族)의 양위/음위에 처하고, 타고난 성분에서 신성(神性)/수성(獸性)의 양성/음성에 가까운 편이다. 역에 비유하여 비패의 상에 근접하는 관계이다.

21) 역의 「계사전」은 “天地의 기운이 화합하여 만물이 醇化하고, 남녀의 정기가 화합하여 만물이 化生한다(天地啣絪 萬物化醇 男女精氣 萬物化生)”고 말한다.

22) 줄고, 앞의 책, p. 24.



천신의 아들인 환웅과 굴속의 곰인 웅녀 사이에는 천↔지 간과, 신↔수만큼의 간격이 벌려 있다. 이들은 천/지 차의 신분적 거리와 신/수 차의 성분(자질)의 격차를 마주하고 있다.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이런 천지 차의 거리를 뛰어넘어 신수 차의 격차를 극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천/지의 접점, 신/수의 중간에 인간이 있다. 천상과 지하 사이에 인세(人世: 地上)가 있고, 신성과 수성 사이에 인성(人性)이 있다.²³⁾ 인간은 천/지의 중간자이고, 신/수의 양성적 존재이다. 천↔지의 분단과 신↔수의 분열은 인간의 접점에서 일치 융합될 수 있다. 환웅과 웅녀는 이런 인간이 됨 '化爲人'의 과업을 수행하고 인간이 됨으로써 결혼을 성취한다.

서사 기록상 환웅의 인간화 '假化'가 먼저 시작된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계를 탐하거늘"²⁴⁾에는 인간 세계에 마음을 두고 인간이 되고자 하는 환웅의 소망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白)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²⁵⁾에는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에 근접하는 심상이 잠재되어 있다. 환웅이 천상에서 지상(人世)으로, 신성(神性)에서 인성(人性)으로 접근하는 심상이다. 이른바 지상신인 반신반인에의 접근이다. 이런 천신(天神)→지상신(地上神: 半神半人)의 변신은 환웅이 웅녀의 수태 소원을 들어주어 스스로 인간으로 가화(假化)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됨에 이른다. 여기에서 환웅의 천신→지상신의 추이는 환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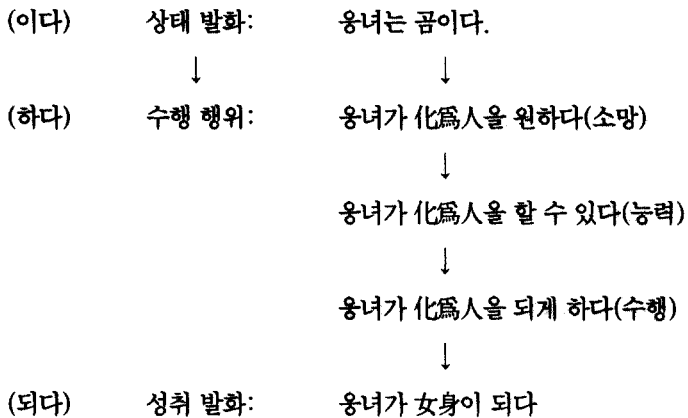
23) 김열규 교수는 이러한 삼각 관계를 신=인간≒동물로 표시한다(김열규, 앞의 책, p. 48).

24) '古朝鮮', 「紀異」, 「삼국유사」.

25) 위의 책.

에 대한 상대적 양성(양위)인 아버지 환인의 허락(파송)으로 수행되고, 다시 지상신 가화의 변신은 용녀에 대해 상대적 양성(양위)인 환웅 자신의 신성(神性)—능동적 활성(活性)으로 성취된다. 환웅의 인간화 '가화'는 이런 천신→지상신→인간의 점진적 변형에 동행한다.

이에 비하여 용녀의 인간됨 '화위인(化僞人)'은 이른바 과업 수행에 의한 성취의 시범적 예에 가깝다.



환웅에 대해 용녀는 상대적으로 신성에 대한 수성으로, 양성에 대한 음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역에서 일체의 존재(個體)는 태극의 현현이므로 곧 음양의 총체(통합체)이다. 즉 모든 존재는 자체 내에 음/양의 양성을 선험적으로 공유한다. 표면상 환웅이 용녀에 대해 신성의 양성으로 나타난다 해도 환웅의 개성은 잠재적 음성인 수성을 보유하며, 용녀의 개성은 표면적 수성 저변에 잠재적 양성인 신성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환웅	: 신성
용녀	: 수성

의 표면 심상(음양의 총위)은 입체적(사상의 총위)으로

환웅	: 양성(음성)
용녀	: 음성(양성)

: 신성(수성) 수성(신성)의 상대적 심상에 자리하는 것이다.

역의 변화는 역을 통한 음∞양 총화(균형)의 회복이다. 이는 용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극(對極) ambivalence을 통한 의식∞무의식의 보완 경향과

상통하는 것이다. 역에서 변화는 표면(上卦)의 일방성(지배)에 대한 상대적 잠재성(下卦)의 반발(淨上) 추이이고, 용 심리학에서 심리의 흐름은 의식의 일방성(편중성)에 대한 대극적 무의식의 활성화 경향이다. 용녀는 환웅에 대하여 표면적 수성/잠재적 신성의 개체이다. 이제 용녀의 잠재적 양성이 스스로의(양성 특유의) 능동성으로 신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용녀는 자신의 천성인 수성을 벗어나 수성의 상대적 신성인 인성이 되고자 한다.²⁶⁾ 용녀는 꿈으로서 상대적으로 신적 존재인 인간을 꿈꾸는 것이다. 용녀는 이를 꿈꿀 뿐더러(소망의 단계)→잠재적 양성인 신성의 활성화로 스스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탐문하여 그 비법을 알게 되고(능력을 갖추고)→마침내 주어진 금기—일광(日光) 금기와, 계약—마늘과 쑥을 먹어야 하는 약속을 인내로써 실행한다(수행의 단계). 용녀의 표면적 수성에 가려진 잠재적 신성은 양성 특유의 능동성 : 활성화, 양성의 본질은 밝은(明) 인격 : 이른바 당대에서 말하는 덕성(德性)으로 인간됨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용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고(결실의 인식)→그 구제의 길을 찾고(수행 행위)→잠재적 덕성인 인내심으로 극복한다(결실의 해소, 충족).

여기에서 환웅의 가화는 천신의→인간화로 상대적 양성의 음성화 추이이고, 용녀의 여신(女身)은 꿈의→인간화로 상대적 음성의 양성화 변형이다. 환웅은 이른바 인간(적인) 신으로 격하되었고, 용녀는 인간(같은) 동물로 격상된다. 환웅과 용녀는 상대적으로 각각 하강선과 상승선에 동행하는 것이다. 환웅의 천상→지상으로의 이동은 하강의 심상을, 용녀의 입혈(入穴)→출혈(出穴)의 실현은 상승의 심상과 동반적이다.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여 이제 용녀의 양성적 활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된(음성화되어가는) 환웅을 주도하기에 이른다. 용녀의 적극적 수태 소원이 환웅의 가화를

26) 신화적 사고(원시적 사고)에 의하면 신과 동물 사이에는 반드시 인간의 중개(神(性)≠人(性)≠獸(性))가 있어야 한다(김열규, 앞의 책, pp. 47~49).

움직이기에(끌어내기에) 이르는 것이다.

실상 단군의 탄생 모티프에서, 주도적 행위 주체는 환웅이라기보다는 웅녀라는 편이 적절하다. 역에 비유하면 하괘(下卦)에 위치하며 심리에 비유하면 무의식에 잠재하는 웅녀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행 행위로써 주인 공들의 인간됨의 변형과 단군(시조) 탄생의 성취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웅이 인간으로 가화하고 웅녀가 화위인을 성취하자 환웅과 웅녀는 인간 대 인간으로 더불어 동등해진다. 역의 상에 비유하면 환웅과 웅녀의 관계는 천신(天神) ↔ 지수(地獸)의 분열로부터 인성(人性) : 인성(人性)으로 일치하는 비괘(否卦) → 태괘(泰卦)의 추이로 움직이는 것이다.

환웅과 웅녀가 천신과 지수의 탈을 벗고 인간의 접점에서 인성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최초의 인간이 탄생된다. 이가 바로 단군이고, 단군은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자 우리들의 첫 조상인 시조가 된다. '단군이 태어나게 되다'는 곧 '인간이 태어나게 되다' '우리들의 시조가 탄생하게 되다'와 동의어인 것이다. 「단군 신화」는 이런 우주적 생성과 원초적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생성—탄생과 변화—성취에 대한 원시적 상상력이 잠재되어 있다. 생성과 변화의 질서를 天(上) ≒ 人(世) ≒ 地(下) :: 神 ≒ 人 ≒ 獸 :: 男 ≒ 兒 ≒ 女의 삼각형의 대치 ∞ 융합으로 보는 서사적 인식이 깔려 있다. 천·지·인 삼재를 아우르는 문자 그대로 원형적 의식 체계를 동반하는 것이다.²⁷⁾

II. 민담의 변이 유형

「단군 신화」는 시조 전승이자 전국 신화답게 탄생—생성과 성취—변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단군 신화」를 시범으로 읽을 경우, 사상(四

27) 이때 기록화된 「주역」의 상징 체계나, 「단군 신화」 속의 원형적 상상력 savage mind이나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의 이념적 기호—남성 이데올로기의 표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象)의 층위에서 이야기의 서사 체제는 한마디로 한 쌍인 주체/대상 간의 역전의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체/대상 간의 관계가 역에 비유하여 비패의 상↔하 간 분열과 ⇌태패의 좌↔우 간 결합의 역행과 반전에 동행한다는 말이 된다.

가령 이를 이야기투에 충실하여 풀이할 경우, 지금 능동적 주체인 상층 신분(上卦: 양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수동적 약제—결핍의 상황인 하층 계급(下卦: 음위)이 그 잠재적 양성인 덕성(德性)의 활성화로부터 주도적 행위 주체로 등장하면서 강자인 상층 계급을 끌어내리고(움직여) 마침내 자신의 상층 신분으로의 부상(성취)을 도모하는 것이다.²⁸⁾

물론 역에서 양위와 양성, 음위와 음성은 상호 추이(⇒) 일치(:)하는 관계로 양위가 곧 양성이고 음위가 음성이 되는 상대적∞절대성의 관계이다. 단지 그 상대적∞절대성에 충실하여 현상계에 비유할 경우 위에서처럼 위치/성분::계층/자질에 상응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이 절에서는 「단군 신화」의 서사 모형에 대한 민담의 서사 체계와 그 변이 유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면상 「단군 신화」에 상응하여 한 쌍의 주체/대상 간 신분 관계가 뚜렷한 민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²⁹⁾

먼저 우리나라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이야기 유형인 귀한 신분의 여자/천한 신분의 남자의 결혼 성취담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우리 민담에서 이런 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서동과 선화 공주」를 들 수 있다. 이들 이야기는 신분상 한 쌍의 주체/대상(배우자)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begin{matrix} \text{귀: 양위} & \times & \text{여: 음성} \\ \text{천: 음위} & & \text{남: 양성} \end{matrix}$ 의 태패상에 놓여지면서 자체 내에 이미 잠재적 결합 추이를 내포하는 예에 해당한다. 서사의 주체인 하층 신분(결핍된 존재)이 남성인 경우, 상대적 능동성을 잠재한 남성: 양성(현실

28) 여기에서 힘있는 자/힘 없는 자는 신화나 민담의 봉건 시대에서는 귀족/천민의 신분 관계로 나타나겠지만, 근대 산업 사회에 이룰수록 부자/가난한 자의 계층으로 시사될 수 있다.

29)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拙稿, 「신화와 민담의 서사 구조 연구」 『강원대 인문학 연구』 제 29집, 강원대 출판부, 1991 참조.

적 성취 가능성)의 활성화로 주인공 자신이 상위로 반등하여 결혼을 성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 된다.

서동과 선화의 경우, 선화는 공주의 신분에서 황금의 개체로 나타나나 서동은 마장수의 신분에서 마의 개성—마(驍獍)를 깨어 팔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서동이라 불렀다 함—으로 암시된다. 먼저 선화와 서동은 $\frac{\text{선화}}{\text{서동}} : \frac{\text{貴(양)} \rightarrow \text{賤(음)}}{\text{賤(음)} \rightarrow \text{貴(음)}}$ 의 관계로 출발하나, 서동의 잠재적 개성인 양성—뛰어난 지략(「서동요」의 소문)의 활성화(활약)에 힘입어, $\frac{\text{서동} : \text{賤(음)}}{\text{선화} : \text{貴(양)}} \times \frac{\text{夫(양)}}{\text{婦(음)}}$ 의 관계로 반전되면서, 부부의 조화—태과상에 부응하는 부 : 황금의 인식과, 귀 : 부마 자격과 왕위 등극을 획득한다.³⁰⁾ 이른바 하층 신분의 주인공이 뛰어난 모험(용맹)이나 지략으로 공주의 부마가 되는 범세계적인 결혼 성취담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귀녀/천남의 유형에 상대적인 귀남/천녀의 유형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우리의 경우 귀남/천녀의 대표적 서사담으로는, 이미 읽었던 「단군 신화」를 비롯하여, 「콩쥐팍쥐전」 「춘향전」을 들 수 있다. 귀남/천녀는 상대적으로 $\frac{\text{귀(양)} - \text{남(양)}}{\text{천(음)} - \text{녀(음)}}$ 의 전형적인 비패의 분열상으로 출발한다. 앞에서 읽었던 $\frac{\text{귀}}{\text{천}} \times \frac{\text{여}}{\text{남}}$ 의 예가 하층 신분인 주인공이 남성(양성)임으로 하여 신분 상승과 결혼의 성사 가능성이 예고되어 있음에 비해, $\frac{\text{귀-남}}{\text{천-녀}}$ 의 유형은 서사의 주역인 하층 신분이 소극적인 여성(음성: 현실적 여건의 불리성)이므로 이른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을 활성화(양성: 유리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가정하게 된다. 대신 이런 유의 이야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자 주인공들이 대개 표면적 여성(활성)의 소극성을 넘어서는(상쇄할 만큼의) 특출난 잠재적 덕성(양성)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용모〈착한 마음씨〉성실함과 지혜로움 등과 같은 진·선·미의 덕성과 자질을 두루 겸비한 뛰어난—거의 이상적인—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30) 줄고, 「영웅의 자아 실현과 여성 영웅주의에 대하여」, 『한국 시의 기호학적 연구』, pp. 195~202.

그래서 귀한 신분의 남자에 대해 천한 계층의 여자라는 몇 곱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자질과 성품(잠재적 양성)이 주인공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게 되고, 급기야 상층의 남자 주인공을 움직여(끌어내려) 결혼을 유도하기에 이르게 된다. 물론 대개의 주인공들은 스스로의 능력뿐 아니라 초인(超人)이나 주위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거나 과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초인을 움직이고(감동시키고) 주위의 도움을 끌어내는(유발시키는) 원천이 바로 그 착한(이타적·희생적) 마음씨나 성실한 과업 수행 등 주인공이 소유한 잠재적 덕성과 역량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귀-남 / 천-녀)의 유형은 (귀 / 천 × 여 / 남)의 예에 비교하여 상/하 간 계층적 곱이 깊은 만큼 결혼 장애의 벽이 두터워지고, 결혼 장벽이 두터운 만큼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의 성취가 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춘향전」이나 서양의 「신데렐라」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영원한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비패→태패::분열→결합::결핍→충족의 가장 전형적인 서사적 추이를 동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콩쥐나 신데렐라 이야기는 신분적 열등<가난의 궁핍>모성애 결핍이라는 몇 겹의 결실 상황(-)으로부터 왕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물질 해소>애정 충족이라는 결실의 해소 지향으로(+) 이행하는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며 무의식(욕망)의 완벽한 충족 경향이라 볼 수 있다. 콩쥐와 신데렐라의 꿈은 모든 여성, 나아가 모든 인간의 영원한 원형적 집단 무의식인 것이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단군 신화」의 시범에 비친 민담의 서사 체계와 그 변이 유형을 다루어왔다. 크게 태패적 유형::귀녀/천남의 예와, 비패적 유형::귀남/천녀의 유형의 결혼 성사에 이르는 서사 체계를 살펴보았다. 귀녀/천남의 이야기는 자체 내에 이미 결합의 추이를 예고하는 비교적 혼한 서사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귀남/천녀의 유형은 계층의 곱이 깊은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극적인 반전을 수반하는 비교적 파격적인 예에 해당한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공감을 유발한다면 후자는 비교적

극적인 공감을 유발하는 예인 셈이다. 이 논문이 읽어온 이들 두 갈래의 서사유형은 비단 남/녀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비교적 주체/대상 간 한 쌍의 제층 관계가 뚜렷한 서사담들에 일관된 체계일 수 있다. 가령 이는 군/신이나 형/제 관계, 부자/가난한 자 간의 갈등에도 공통적인 체계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보기로 하자.

4. 박경리 『토지』의 담론 양상

이 절에서는 박경리의 『토지』를 자료로 하여 역의 기호에 상응하는 담론의 양상을 읽어보고자 한다.³¹⁾

신화: 민담: 소설은 공시적(共時的)으로 보편적 서사 구조를 공유하기도 하나, 신화→민담→소설의 통시적(通時的) 변화, 즉 장르적 변별성에 내재하기도 한다. 후기 기호학자들은 신화·민담과 같은 고전 서사담에서 현대 소설에로의 장르적 추이를 이렇게 시사한다. 즉 생성론의 관점에서, 집단적 경험과 전통 의식의 소산으로부터 특징인(작가)의 현실적 경험과 개인적 가치관의 소산으로, 구조론의 층위에서 보면, 전형적·결정적 구성에서 상대적·비결정적 구성으로, 그리고 표현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규범적·단성적 언술로부터 개성적·다성적 언술로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이들이 말하는 고전 서사담/현대 소설의 장르적 특성은 기호학에서 말하는 랑그의 층위/파롤의 층위에 상응하며, 언어학의 개념으로 규범적 언어 language/실제적 언술 discourse에 가깝다 할 수 있다.³²⁾ 이에 이 논문은 역의 기호에 상응하는 현대 소설의 통사 체계를 검토

31) '담론'은 언어학에서 추상적 언어 language에 대한 구체적 언술 discourse을 이르는 개념이다. 이 논문에서 '담론'은, 바흐친의 용어로, 대화적 관계의 언술, 즉 대화 당사자 간의 신분이나 사회적 계급을 내포하는 언술을 의미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담론의 양상은 언술의 층위: 이념의 층위의 상동 체계로 읽게 된다.

32) 김옥동, 「단성적 문학과 다성적 문학」 「소설의 이론」,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

함에 있어 텍스트의 추상적 언어 체계를 넘어서서 그 표층의 현상적 담론을 살피는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토지』는 시대성에 충실한 이른바 역사소설이다. 이런 유의 소설 양식은 텍스트 층위와 사회·역사적 맥락(컨텍스트 층위)이 상호 동반적이다. 즉 텍스트의 담론과 당대의 역사적 현실이 상동 체계라는 말이 된다.

『토지』의 시대적 배경은 구한말→개화기→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격변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전근대와 근대적 요소의 첨예한 갈등과 함께, 봉건적 구체제로부터 근대적 신질서로의 재편이 가속되던 문자 그대로 과도기였다. 소설 속 '최참판 댁'의 몰락은 당대 양반 지주 계층의 붕괴와 동반적이다. 이는 봉건적 신분 체제인 주종적 수직 관계의 수평화(대등 관계) 추이로 역의 기호로 읽어보면 비패에서 태패로의 교체에 상응한다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최참판 댁 여인 3대에 반복되는 양반 여(兩班 女)/상민 남(常民 男)의 관계 양상을 통해 이런 역의 추이와 사회적 변화의 상동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씨네 여인들은 조모→모→손녀 3대에 걸쳐, 중인 혹은 천민 남자와의 숙명적 관계를 대물림한다. 이들은 윤씨 부인과 동학당 장수 김개주→별당 아씨와 머슴 구천이→최서희와 역시 종의 신분인 김길상의 쌍으로 연계된다. 『토지』 1·2부에 등장하는 이들 양반 여/상민 남의 세대별 담론 양상을 통해 이들 3대에 걸친 관계 변화를 따라가보기로 한다.

먼저 윤씨 부인과 동학당의 장수 김개주의 대화에 내재하는 언술 층위에 접근해보기로 하자.³³⁾

처음 김개주는 윤씨 부인에게 “나를 용서하시오, 살아주어서 고맙소”라고 사념을 드러내나, 윤씨의 침묵에 “환이가, 부인의 아들이 현연 장부가

론』, 문학과지성사, 1999 참조.

33) 박경리, 『토지』 1부 1권, 서울출판사, 1993, pp. 364~65. 소설 『토지』에서 윤씨 부인과 김개주가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이다.

되었소. [……] 내일 아침에는 이곳을 떠나리다”와 같은 사무적 보고로, 다시 윤씨의 대꾸 없음에 “기여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군, 그 도도한 피에 경의를 표하고”와 같은 반어적 비아냥으로 끝맺는다. 어법은 공대를 유지하나 어조(말투)는 상대 존중에서 야유와 조롱조로 바뀐다. 김개주의 대화 모색은 윤씨 부인의 침묵 앞에 상호 소통이 아닌 일방적 독백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언술에 동행하는 이념(바흐친의 용어로 이데올로기)의 층위에서, 윤씨 부인/김개주는 각각 양반 의식/동학 이념의 주체로 드러난다. 이들 간의 대면은, 처음에는 구연(舊緣)을 지닌 사적 관계로 출발하나 점차 동학당의 장수인 김개주의 공적인 얼굴이 드러나면서 끝내는 양쪽의 신분의 벽을 확인하는 관계로 마감된다. 동학의 무리를 이끌고 온 김개주 앞에서 윤씨 부인은 주인(上座)의 자리에 앉은 채 침묵으로 시종함으로써 상전의 자리와 양반 부녀의 법도를 고수한다. 이런 윤씨 부인에 대해 김개주는 사념을 거두어들이면서 마침내 “그 도도한 피”의 드높은 양반 의식에 풍자와 조롱으로 맞서며, ‘자조적 웃음’으로 물러나고 만다.

동학 장수에 대한 윤씨 부인의 좌정과 침묵은 양반의 담론이고, 최참판댁 부인에 대한 김개주의 야유와 자조적 웃음은 상민 출신 동학 교도의 담론이다. 이들은 양반 의식의 교수/동학의 저항 의식 간 계급적 담론으로 상호 대화가 아닌 침묵/독백의 평행선에 머물고 만다. 상호 소통의 수평 관계가 아닌 상호 단절의 수직 관계에 자리하는 것이다. 역에 비유하면 비패의 분열상에 내재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인 별당 아씨/환이(최참판댁 머슴 구천이)의 경우를 보면, 언술상, 이들의 대화에서는 호칭 ‘여보’의 전경화가 두드러진다.³⁴⁾

병든 여자(별당 아씨)는 환이에게 “여보 절 좀 일으켜주시려요?” “여보 제 머리”라고 요청하면, 환이는 매일의 순서에 따라—세수에서 옷 입히

34) 『토지』 1부 3권, pp. 314~15. 소설 『토지』에서 여자(별당 아씨)와 환이가 직접 대화하는 유일한 장면이다.

기, 머리 빗기기까지 '경건한 의식처럼' 여자의 수발을 들고 난 후, "여보" "이제 다 되었소, 시원하시오?" 하면, 여자의 "예"로 이들의 대화는 끝난다.

여자나 환이나 습관처럼 말머리에 호칭 '여보'를 앞세운다. 호칭 '여보'는 부부 관계를 지시하는 사회적·관계적 기표이다. 상대를 '여보'로 부르는 이들은 서로에게 아내이고 남편이며(의 주체이고), 그런 이들의 언행은 자연스럽게 아내로서/남편으로서의 부부의 담론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현실 속의 이들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부부가 아니다. 사회-평사리로부터 쫓겨나 깊은 산 속으로 도망친 저들끼리만의 사적인 부부 관계이다. 즉 애정의 층위에서 부부와 같은 남녀 관계일 뿐이다. 이들이 대화마다 부부의 관계적 호칭을 앞세우는 것은 양쪽 모두가 공적인 부부 관계에 집착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집착할 만큼 공적인 부부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표에의 집착은 그 기의의 불안정함(결핍 상황)을 시사한다. 여자나 환이나 여자의 몸단장에 '일종의 의식처럼' 매달리는 것도 이런 관계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다. 호칭과 의식에 연속되어 있는 이들의 담론에는 부부일 수 없는 부부 관계의 역설-집착하는 만큼의 소외감이 동행한다. 봉건적 인습과 개인적 선택 사이의 거리(갈등)를 내포하는 담론이다. 아울러 사회적 맥락에서 여전히 봉건적 인습이 우세하나 잠재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전근대의 근대화 경향을 시사하는 담론이다. 역의 패상으로 비유하면 비패에서 잠재적 태패로의 추이에 상응한다 할 수 있다.

3대제인 최서희/김길상의 담론 양상은 이런 신분에 앞선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는 예에 가깝다.³⁵⁾

이들이 신분을 벗어나 남녀 관계로 접어드는 결정적 계기는 '회령 나들이'의 장면에서이다. '회령 나들이'에서는 서희와 길상의 위치가 여느 때

35) 『토지』 2부 1권, pp. 408~11.

와 달리 거꾸로 바뀐다. 즉 하인인 길상이 아랫목에 ‘떡 버티고 앉아 있고,’ 상전인 서희가 윗목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는 조모 윤씨 부인이 상좌(아랫목)에 앉아 있고 김개주가 윗목에 서 있던 위치와 완전히 역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언술을 따라가면, 처음, 길상과 서희는 각각 종놈의 담론/상전의 담론으로 팽팽한 대결 상태로 치닫는다. 길상은 서희를 ‘애기씨가 아닌 아가씨’로 부르며, “나 오늘부터 최서희 종놈이 아니기로 했소이다.〔……〕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나갑시다.〔……〕아가씨! 대명천지에 돈 있고 족보 있는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다간 큰 코 다칠게요” 하며 대들 뿐 아니라, 더하여 “최서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흥! 천하를 주름잡을 텐가.〔……〕넌 일개 계집 아이에 지나지 않아.〔……〕난 지금이라도 널 희롱할 수 있어.〔……〕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라며, 반말 짓거리에 상전인 서희를 거침없이 비하·모욕·조롱한다. 그때까지 일방적으로 당하던 서희는 마침내 길상을 향해 “이놈아” 욕설을 터트리며, “너 나를 막불 참이구나” “죽여버릴 테다”라며 상전의 체모를 잃고 분노를 터트린다. 그러다가 방바닥에 주질러 앉아 흐느끼며, “난, 난 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던 말이야.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을 했던 말이야” 하며 마침내 길상을 향한 그간의 애정과 갈등을 고백하게 된다. 길상의 공격으로 시작된 신분의 담론에서 서희의 고백과 함께 남녀의 담론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어, 서희는 길상에게 선물하려고 샀던 목도리를 길상의 면전으로 집어던지며, “그 여자 방에서 목도리를 봤단 말이야.〔……〕헉 목도린 내버려! 내버리란 말이야” 하며 울부짖는다. 여기에서 ‘헉 목도리’는 표면상 그 여자와의 기득 관계를 의미하나 시대적 맥락에서 봉건적 구습의 비유이기도 하다.

길상과 서희는 분수(분수) 없이 대들고/체모 없이 울어버리면서 각각 하인으로서/상전으로서의 언행을 벗어난다. 아울러 길상은 “더 이상 최서

회 종놈 아니기로' 언명하고, 서회는 "길상이와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주체적으로) 종놈 의식/양반의 체면을 벗어 던진다. 이들은 이제 서로에 상전이고/하인이 아닌 여자이고 남자이고자 한다. 길상이의 말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서는 상호 관계의 남녀—결혼을 꿈꾸는—이고자 한다. 수직 관계의 수평화 추이인 바, 당대의 현실적 맥락—봉건적 신분 사회의 와해 및 복간도 융정촌이라는 특수 상황—에 상응하는 담론의 양상이다. 역의 기호로, 비패가 쇠퇴하고 태패가 표면으로 부상하는 단계에 비유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읽어온 바, 최참판 댁 여인 3대는, 윤씨 부인과 김개주가 양반의 담론/동학의 이념으로 평행 관계를, 그리고 별당 아씨와 김환이, 양쪽 모두, 사적 남녀로서/공적 신분상의 이중적 부부의 담론으로 갈등 양상을, 끝으로 최서회와 김길상이 신분의 담론→남녀의 담론으로 상호 대등 관계를 지향한다. 이런 토지의 담론 양상은 구한말→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당대의 사회적 변화, 즉 봉건 질서의 붕괴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수직적 계급 사회에서 개성 중심의 근대적 수평 사회로의 교체를 예고한다. 역에 비유하여 비패로부터 태패로의 추이에 상응하는 심상이다. 역의 기호는 이른바 변화의 이치이다. 이런 역의 기호는 서사적 질서, 즉 변화의 통사 체계를 지시하는 초언어일 수 있다. 최참판 댁 가계의 서사는 역의 기호로 읽어, 비패→태패의 유형(패상)에 내재한다 할 것이다.

5. 결어

이 연구는 역의 기호와 서사 문학의 통사 체계와의 상관성을 검토해왔다. 구체적으로 역의 도인 변혁의 질서와 이에 상응하는 이야기 전개의 서사 구조를 신화와 민담의 순접 추이 및 소설의 담론 양상을 통해 읽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역의 변화 체계와 기호학에서 말하는 서사의 통사 체계는 상동적이다. 이들 양자는 역행(역전)의 순환(반복)이라는 시소 원리를 공유한다. 예컨대 「단군 신화」에서 환웅과 웅녀의 관계는 천신(天神)/지수(地獸)의 상/하 관계로부터 남(假化)/녀(女身)의 좌우 관계로 역전된다. 이는 역의 비패→태패의 기호와 등가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화와 민담의 서사 체계는 현대 소설의 담론 양상에서도 일관한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최참판 대’ 가계는 삼대에 걸쳐 귀녀/천남의 관계로 접속되는데, 담론을 통해 본 이들의 관계 양상 역시 상/하 신분의 수직 관계로부터 좌→우 남녀의 수평 관계로 움직이는 비패→태패의 추이를 보여준다. 물론 텍스트에 따라서는 이와 반대로 양자간(혹은 계층간)의 갈등(수직 관계)이 심화되는 태패→비패의 추이를 동반할 수 있다. 역이 시사하는 변화의 질서는 상극의 상생인 바, 만다라의 뱀처럼 분열과 통합을 거듭한다. 이런 역의 기호는 역사적 변화와 서사적 현상의 패러다임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면상 서사의 일반 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필요하고도 충분할 만큼의 사례 검증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야기의 서사 체계를 다룸에 있어 거시적 체계에만 주력한 나머지 미시적 기능이나 미시적 변형들을 소홀히한 한계점도 내놓을 수 없다. 끝으로 이야기의 텍스트 층위를, 보다 역사·사회적 맥락인 컨텍스트의 층위로 확장하여 충실히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점들은 필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일을 두고 보완하게 될 것이다.

The Sign System of Change and the Syntagmatic Structure in the Narrative Literature

Chung, kum-chul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orelativity between the sign system of Change(易) and the syntagmatic structure in the narrative literature. To put it concretely, I've examined the narrative structure which corresponds orders of Change through myths, folktales, and novels.

The altering system in Change and the syntagmatic structure of the narrative literature from the semiological perspectives linked together. Both of them, the narrative structure and orders of Change, hold the principle of seesaw in common. The principle of seesaw, that referred above, implies reversion and repetition. For instance, in "Dan Goon Myth"(檀君神話), the vertical situation of Hwan-woong(桓雄) and Woong-nyo(熊女) had changed into the horizontal one by their marriage. This reversion is from the signs of hexagram P'i(否) to those of hexagram T'ai(泰) in Change.

The very syntagmatic structure of myths and folktales is seen in discourses of contemporary novels. As you see "The Land(土地)" written

by Kyoung Rie Park, in the family of Choi(崔) love affairs between a noble woman and a slave man constantly came up through generations. That a noble woman fell in love with a slave man also shows altering system of Change, in other words the shift of hexagram P'i and T'ai as well.

In conclusion, there is homology between the sign system of Change and the syntagmatic structure in the narrative literature from the semiological perspectives.